

한성숙 국무총리, 모충동 침수 피해현장 점검

-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지시
-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조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1일(토) 오전, 7월 8~9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, 침수 현장과 배수 시설 등을 점검하였다.

* (참석) 신용한 충북도지사, 이장섭 청주시장, 이광희 국회의원(청주시 서원구), 윤건영 충북교육감,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금한승 기후부 1차관 등

□ 우선, 한 총리는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침수 피해현황과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.

○ 한 총리는 “이전 수준 이상의 이상기후가 있을 수 있다”면서 청주시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.

□ 이후 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고,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재해예방시설(모충1배수문)을 함께 점검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행안부와 기후부가 협업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,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.

○ 또한, “전국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뽑아 상습이 잦은 곳부터 점검할 것”도 함께 주문하였다.

○ 한편,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“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 등 행안부와 기후부에 충북 지역 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”고 건의하였다.

- 한 총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행안부, 기후부 등 관계부처 협조하에 배수시설 등의 점검·관리 강화를 강조하고,
- 이와 함께, 기후부 등 관계기관에 현재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00-2346)
	안전 환경에너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윤성모 (044-200-2344)

